



“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”

- 도서지역(제주도) 테러 대응역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-

- ◆ 도서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복합 테러 상황에 대비하여 대테러 관계 기관의 합동 대응능력 및 협업체계 점검
 - (기간/장소) 4.5.(일)~7.(화) / 제주도 일원(칼호텔, 국제컨벤션센터, 강정 여객터미널 등)
 - (참여) 6개 기관 170여명 (국정원, 국방부, 경찰청, 해양경찰청,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, 대테러센터)
 - (훈련내용) △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중기동 및 신속 전개훈련
 △ 다중이용시설·국제행사장·항만 등 복합 테러상황 가정 전술종합훈련
 △ 드론·화생방 등 신종 위협 대응 훈련
 △ 합동 전술토의 및 대테러 정책 발전 논의

□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(센터장 박원호)는 4월 5일(일)부터 4월 7일(화) 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대테러 전담조직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「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」을 실시했다.

□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

- 국가정보원, 국방부(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임무단, 육군 707특수임무단, 해군 특수전전단, 해병 9여단,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259특수임무대대, 601종합수송지원대대 등), 경찰청 및 제주경찰청 특공대, 제주지방해양경찰청(특공대, 서귀포해양경찰서),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(119특수대응단, 서귀포소방서) 등 6개 기관 170여명이 참가했으며,

- 특히, 대테러센터 창설 이후 최초로 도서지역(제주도)에서 실시되는 훈련으로, 공중전개·해상작전 등 입체적인 작전환경에서의 대응능력 검증에 중점을 두고,
- △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(호텔) 인질테러 상황 △국제행사장(국제컨벤션 센터) 내 복합테러 및 화재 상황 △항만 및 선박 인질테러 등 동시다발 테러 상황을 가정한 전술종합훈련을 통해,
- 관계기관 간 신속한 상황공유, 협상·저격·폭발물 처리·화생방 대응 등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과 협력체계를 집중 점검하였다.

□ 한편, 훈련과 별개로 대테러 전술토의 및 정책토의도 진행 예정이며,

- 4월 13일에는 대테러 전담조직 전술제대를 대상으로 드론 대응, 통신 체계, 해양테러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합동 전술토의를 진행하며,
- 4월 14일에는 관계기관 정책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대테러 정책 발전 토의를 통해 민·관 협력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
□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은 현장지도 간,

- “최근 테러양상이 복잡화·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, 도서지역과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며,
- “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, 실전적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아울러 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, 대테러 전담조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	책임자	부 장	윤현주 (02-2100-2032)
		담당자	원 사	정진선 (02-2100-2064)